

‘기독교 지성’의 역할과 소명에 대한 연구: 존 스토틀(John Stott)와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를 중심으로

이정일

논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지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크리스천인 존 스토틀과 비 크리스천인 버니 샌더스의 사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마 5:13-16)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스토틀은 크리스천은 사회적 이슈에 개입함으로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샌더스는 우리에게 진정한 메시지는 이해뿐 아니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준다. 이 두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은 기독교 지성은 하나님 나라의 효과적인 채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기독교 지성, 존 스토틀, 버니 샌더스, 빛과 소금, 사회적 책임

I. 서론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의 책 『영적훈련과 성장』(*Celebration of Discipline*) 제1장의 첫 문장은 강렬하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다.” 포스터는 순간적인 만족이 영적 문제임을 간파한 뒤, 이렇게 진단한다.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은 많은 수의 지적인 사람들이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들이다”(Foster, 1998:1). 포스터는 우리 시대의 고민을 피상적인, 인스턴트 영성에서 찾았다. 포스터는 영성훈련은 영적 거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지극히 평범했으나, 마태, 요한이나 베드로가 남긴 서신서들을 보면 복음주의 역사학자 마크 놀(Mark Noll)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간의 학문 추구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Noll, 2015:14)란 말이 실감난다. 포스터는 인용문에서 세 개의 형용사—‘지적인’(intelligent), ‘재능 있는’(gifted), ‘깊이 있는’(deep)—를 사용했다. 기독교 지성인들은 이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사용하지만, 포스터는 기독교 지성이 두 개만을 쓴다고 본다. 기독교 지성은 이미 지적이고 재능이 있지만, 포스터는 거기에 ‘깊이 있는’이란 수식어를 하나 더 요구한다. ‘깊이 있는’은 이 논문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바이다. 본 논문에선 포스터가 묘사한 우리시대의 피상성을 극복하는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 이것은 동시에 ‘기독교 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란 질문과도 연결된다.

리처드 포스터가 언급한 세 개의 형용사들은 현재 크리스천과 교회가 처한 삶의 자리(Sitz im Leben)를 보여준다. 짐 윌리스(Jim Wallis)는 기독교적 신념을 가진 크리스천이 정치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며 공적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여기지만(Wallis, 2009; Wallis, 2005), 대다수의 크리스천은 윌리스의 견해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밥 브리너(Bob Briner)는 『포효하는 양들』(*Roaring Lambs*)에서 이렇게 묻는다. “도대체 크리스천들은 어디에

있는가?”(Briner, 1993:55-74). A. W. 토저(Tozer; Tozer, 1897-1963)는 우리의 느슨한 태도를 비판한다. “나는 이 시대의 복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사상에서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토저는 우리 스스로가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지 못하는 맹점(盲點)을 이렇게 설명한다. 토저는 진리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온갖 사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보고만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더 나아가 기독교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분석한다. “우리에게서 들리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의 메아리뿐이다. 우리는 진부한 종교적 언어들을 지겹도록 반복할 뿐이다.”(Tozer, 2013:122-123)

인용문에서 토저는 ‘진부한’이란 자극적인 형용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진부한’은 새롭지 않은, 그래서 탄력을 잃은 것을 뜻한다. 토저는 한 마디로 기독교 지성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 ‘진부한’을 탈출하려면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하고, 새로운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 조합할 필요가 있다(Grant, 2016:196). 토저와 같은 시대를 산 화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는 이런 시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피카소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조각가로서 대표작으로 <아버님의 처녀들>, <게르니카>가 있다. 이런 그림을 재능이나 기교라고 생각하지만, 피카소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연구와 실험이라고 생각했다.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의 분석에 의하면, 피카소는 당대 최고였음에도 ‘필생의 역작’을 꿈꾸었다고 한다. 일례로 피카소는 자신의 진보(進歩)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에 번호를 매기고 날짜를 기입했다(Gardner, 1993:175; cf. Ray & Myers, 1986:113). 피카소는 뛰어난 화가였지만 동시에 생각하는 예술가였다. 우리는 이런 피카소의 논리를 기독교 지성과 크리스천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피카소가 시도한 관점은 그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카소는 예술이란 전통적인 개념을 논리, 연구와 실험이란 관점을 갖고 재해석했다. 피카소의 재해석은 예술에 대한 정의이자,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론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와 교회에서 기독교 지성이 담당하는 역할과 소명을 실천/적용이란 시각에서 해석하려고 한다. 기독교 학문이 지향하는 첫 스텝은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김세운, 2003:8-9)일 것이다. 본 논문에선 이 스텝 다음 과정에 주목한다. 흔히 말하는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결과보다는 맥락(context)이란 측면에서 찾으려한다. 문맥(어떻게 정의하는가)이 결과(대중의 반응)를 결정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긴다는 뜻이다(cf. Luntz, 2007:45). 실천을 강조할 때 소금이 맛을 내려면 고기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비유한다. 이러한 적용 혹은 실행의 영역에서 두 사람을 예로 들 것이다. 존 스토틀(John Stott, 1921-2011)와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1941-)이다. 스토틀은 20세기 영국에서 영향력이 아주 컸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데이비드 에드워즈(David Edwards)는 영향력 면에서 존 스토틀을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 다음으로 손꼽았다(Chapman, 2005:498). 샌더스는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는 버몬트(Vermont) 주의 무소속 상원의원이다. 그는 자기 당(黨)도 아닌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과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인바 있다.

본 논문에선 21세기 한국 사회에 절실한 기독교 지성의 역할과 사명을 존 스토틀과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존 스토틀의 경우, 그가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1984) 중 특히 1장부터 3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버니 샌더스의 경우엔, 그가 2015년 9월 14일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에서 행한 연설¹⁾을 다룬다. 스토틀은 대표적인 복음주의 학자이자

목회자였기에, 기독교 지성에 대한 시각은 분명하다. 반면 샌더스는 세속적인 유대인(a secular Jew)이다. 비(非) 크리스천인 그를 선택한 이유는 소통이다. 그는 미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협력한다. 복음에 초점을 맞춘 스토트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란 소통의 방식도 그에 못지않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거듭난 복음적인 기독교 지성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복음과 소통’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기독교가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이 메시지(message)의 진정성을 메신저(messenger)를 통해 검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메신저가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종교적 용어의 한계와 의미를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에 주목한다. 이런 논의의 과정에서 밥 브리너(Bob Briner)도 함께 언급할 것이다.

II. 본 론

1. ‘기독교 지성’에 대한 이해: 존 스토트의 ‘거룩한 세속성’ 개념을 중심으로

베빈 알렉산더(Bevin Alexander)는 미국의 군사(軍史) 전문가이자 전략가이다. 그는 한국 동란 때도 장교로 참전한 바 있다. 『위대한 장군들은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나』(*How Great Generals Win*)에서, 알렉산더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장군들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후방을 공격했다고 지적한다(Himmelfarb, 1962:387). 한니발(Hannibal), 알렉산더(Alexander), 맥아더(MacArthur) 장군 역시 간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선호했다(Kissinger, 1994:480). 이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간접공격엔 물리적 공격과 심리적 공격이 모두 포함된다. 심리적인 측면에선 한국동란 때 중공군이 미군 포로를 상대로 운영한 세뇌 프로그램이 한 예가 된다(Cialdini, 1984:92-94). 또한 물리적인 측면에선 스텔스 기능이 무장(武裝)에서 대세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이러한 간접공격이 갖는 효과를 인식했던 것 같다. 1873년 『볼테르의 인생』(*The Life of Voltaire*)을 읽은 뒤, 다윈은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단 오히려 느리고 조용한 방식의 측면공격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주목을 받는 일들은 주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빈곤, 실업, 불평등, 인권, 이혼, 성소수자, 안락사, 배아복제, 동물권, 다문화, 난민, 테러 같은 사회, 정치, 경제 사안들에 관련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선택은 쉽지 않기에, 크리스천은 ‘강요와 방임’ 혹은 ‘도피와 관여’ 사이에서 갈등한다(Stott, 2005:39). 혼란을 줄이려면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 시각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성경교사들은 생각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해석의 원리나 가이드라

1) 리버티 대학교는 버지니아주 린치버그(Lynchburg)에 위치한 크리스천 대학교이다. 리버티 대학교는 1971년 제리 폴웰(Jerry Palwell) 목사가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를 주장하며 세운 침례교 신학교로 출발했다. 지금은 등록학생 수 5만 7천명으로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큰 대학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종합대학교이다. 제리 폴웰 목사는 1976년 ‘도덕적 다수’를 주제로 집회를 시작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것을 조직화했는데, 이것은 미국 우파와 공화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버니 샌더스는 총장(제리 폴웰 주니어),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했다. 리버티 대학에서 매주 채플(chapel)을 대신해 열리는 행사였다. 샌더스는 보수의 선두주자인 리버티에서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란 질문을 던졌다. 샌더스는 성경(마태복음 7장 12절, 아모스 5장 24절)을 풀어가며 이를 설명했다.

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해석학(Hermeneutics)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적인 피조물로 창조했다. ‘생각하는 크리스천’(a thinking Christian)이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포스트모던한 시대를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을 의미한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크리스천은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 있으면서도 그 흐름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존 볼크(John Volk)는 은밀하고 미묘하게, 때론 격렬하게 진행되는 이 싸움을, “본질적인 기독교의 신념과 가치들을 이해하는 작업은 역동적이고 평생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 알면 알수록 표현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Volk, 2012:158).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무엇보다 지혜롭게 싸워서 이기는 기술, 곧 상대의 수(手)를 읽고 제대로 공략하는 ‘전략과 통찰’이 필요하다. 낸시 피어시는 『완전한 진리』(*Total Truth*)에서 이것을 변증(apologetics)으로 이해한다. 피어시는 크리스천이 기본적인 변증의 스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변증을 생존도구로 인식한다(Pearcey, 2004:125). 성경이나 교리를 실생활과 연결 짓는 법을 모른다면 가족과 교회 이외의 공간에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걸 체험적으로 터득했기에 피어시는 신앙의 변증은 모든 믿는 자가 배워야 할, 가져야 할 의무이지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라고 강조한다(124).

존 스토틀트는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네 가지 선물을 손꼽는다. 첫째는 생각할 수 있는 정신, 둘째는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거, 셋째는 진리의 영, 넷째는 기독교 공동체이다(Stott, 2005:80). 이중 기독교 지성은 ‘생각할 수 있는 정신’과 연결된다. 이 생각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계시를 통해 주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데 있다. 답을 주어도 교리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많다.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사회적 실천을 위해 내 생각을 정리하려고 할 때, 존 스토틀트는 ‘거룩한 세속성’(holy worldliness)을 제시한다. 성(聖)과 속(俗)의 합일을 연상시키는 모순을 스토틀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분[예수님]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 하셨다. 하지만 좀더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그분의 사역 전체가 정치적이었다”(35). 스토틀트는 존 웨슬리를 본보기로 설명하며, 복음은 뿌리이고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복음의 뿌리로 본다(21-58). 사회적 책임은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짐 윌리스는 크리스천에게 사회적 책임은 의무로 보았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선 작가 최명희와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도 주목한다.

작가 최명희가 『혼불』로 1997년 제11회 단재상을 받았다.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한길사가 제정한 상(賞)이다. 최명희는 1980년 4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17년간 혼신을 다하여 육필 원고지 1만 2천장을 써내려갔다. 작가는 단재상 수상소감을 짧은 한 마디로 대신했다. “제가 정말 쓰고 싶었던 것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 한다면 그것은 어둠이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살았어도 희망을 품었던 민초(民草)의 삶에 주목한 작가의 관점을 보여준다.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도 작가 최명희와 비슷한 말을 한다. 아감벤은 「동시대인은 무엇인가?」란 글에서 ‘동시대인’을 자신이 사는 “시대의 어둠’을 보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동시대인이란 자신의 시대와 완벽히 어울리지 않는 자, 자기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런 뜻에서 비시대적인/비현실적인 자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까닭에, 바로 이 간극과 시대착오 때문에 동시대인은 다른 이들보다 더 그의 시대를 자각하고 포착할 수 있다.”(Agamben, 2010:71). 최명희나 아감벤의 말은 기독교 지성이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

사할 것인가를 다시금 보여준다. 기독교 지성은 동시대인들이 간파하지 못하는 시대의 실상을 자각하고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악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Briner, 1993:41).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히듯, 빛 역시 제 역할을 못하면 어둠보다 더 어두워질 것이다. 비기독교 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존 스토틀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증거하고 섬기도록 보냄 받는다는 의미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이라고 강조한다(Stott, 2005:55). 한 마디로 교회와 크리스천은 거룩성(holiness)과 세속성(worldliness) 둘 다를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데 있다(Dever, 2007:777). 존 스토틀은 웨슬리(Wesley)를 예를 들어 “웨슬리는 복음 전파자인 동시에 사회적 의를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스토틀은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화 된 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적 통치다”(Stott, 2005:23, 29)라고 부연한다. 그래서 스토틀은 크리스천, 특히 기독교 지성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분[하나님]의 관심사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신성한’ 것 뿐 아니라 ‘세속적인’ 것도, 종교뿐 아니라 자연도, 그분의 복음뿐 아니라 모든 백성, 칭의 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 내의 사회 정의, 그분의 복음뿐 아니라 그분의 율법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관심사를 좁혀서는 안 된다. 나아가 우리의 관심사 역시 그분처럼 광범위해야 한다. (45)

교회를 ‘동교회’로 보는 모델 대신, 우리는 교회의 ‘이중 정체성’이라는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 한편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 속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세 지향성’을 부인하고 증거하고 섬기도록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다는 의미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본회퍼(Bonhoeffer)의 본을 따라 알렉 비들러(Alec Vidler)가 교회의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부른 것이다. (55)

교회가 가진 ‘이중 정체성’이란 정체성은 성과 속 혹은 사건과 공론이란 경계를 넘는 월경(越境)의 개념을 내포한다. 연결(connectivity)은 월경의 개념과 맞물려 있다. 말하자면 스토틀은 크리스천은 비(非)크리스천의 사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월경의 의미를 브리너는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당신이 사는 동네에서 크리스천하면 누가 생각나는가? ... 당신이 속한 교회는 기독교나 크리스천에 대한 편견과 악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Briner, 1993:56). 브리너가 비유한 사실은 다나 보이드(Danah Vayd)가 십대들이 인터넷 마이스페이스(MySpace)에 가입한 이유를 물었을 때 얻은 십대들의 대답에도 들어 있다. 십대들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지요.”(Loubser, 2012:1 재인용)라고 대답했다. 스토틀이 지적하듯, 기독교 지성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란 두 나라 모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관심사를 ‘신성한’(sacred)이란 울타리 안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 다시 말해, 빛은 어둠을 비추어야 하고, 소금은 고기 안에 스며들어야 한다. 이것이 창(窓)의 삶이다. 창은 세속 사회에 도전을 주는 삶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선포되지만 동시에 관찰된다. 진리는 선포되지만 동시에 발견된다. 믿음과 진리는 정직한 크리스천의 인생을 통해 관찰되고 발견된다. 그래서 투명한 삶, 정직한 인생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 10:16)”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듯, 순결과 지혜는 한 세트이다. 함께 움직인다. 교회의 미래는 ‘거룩함’과 ‘세속성’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크리스

천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동시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2. 기독교 지성에 대한 이해: 버니 샌더스의 ‘소통’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완전한 진리』(*Total Truth*) 도입부에서 낸시 피어시(Nancy Pearcey)는 마틴 마티(Martin Marty)의 말을 꼼꼼히 인용한다. 마티는 시카고대 신학부에서 18세기 말과 19세기 교회사를 가르쳤다. 그는 종교를 해석하면서, 모든 종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개인구원의 메시지(message)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해석하는 렌즈(lens)이다. 마티 교수는 『근대의 분열』(*The Modern Schism*)에서 기독교는 개인구원이란 박스에 갇혀 세상과 소통하는 역할을 잊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사적영역(private sphere)에 갇혀 공적영역(public sphere)에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Pearcey, 2004:35). 이 점에서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의 행보는 정치적/사회적 월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샌더스는 ‘연결’을 활용하여 사건(私見)을 공론화시킨다. 말하자면 샌더스는 하틀리(Hartley)가 “연결이란 주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접근성과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Hartley, 2002:120)고 한 정의의 실천적인 예를 보여준다. 샌더스는 자본주의 심장인 월가 개혁을 외치고, 미국에서 부(wealth)가 상위 0.1%에 집중된 것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경제(a rigged economy)라고 비판한다. 샌더스는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건을 공적 이슈와 연결시킨 뒤, 이것을 공론(公論)의 장에서 펼치고 있다.

샌더스가 밝힌 소득 수치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서 상위 0.1%가 하위 90%가 소유한 부와 맞먹는 수준의 재산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받는 전체 월급 액수의 58%가 상위 1%의 몫이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기에 거대한 요트와 개인 제트기를 소유한다. 샌더스는 지난 2년 동안 미국 내에서 슈퍼 리치(super rich) 15명의 재산이 1700억 달러 늘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미국의 일반 시민 1억 3천만 명이 2년간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은 액수이다. 지난 2년간 15명이 1700억을 버는 동안 450만 명의 미국인들은 빈곤 가운데 있다. 시간 당 임금은 7.25달러, 8달러, 9달러이다. 매년 수천 명이 의료보험이 없어 사망한다. 따라서 차가 고장 나가거나 가족이 아프면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거기다 직장까지 잃으면 가족을 부양할 길이 없다. 샌더스는 이렇게 비판한다.

우리가 도덕과 정의를 말할 때, 너무 많은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는 가난하다면, 제 생각엔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 그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경제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더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한 경제입니다. 그 비용은 보통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 우리가 도덕을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죄인이든, 아플 때는 의사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²⁾

샌더스는 낙태나 동성애에 대해선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에 보니 이라크 전쟁 비준, 대형은행 해체, 월가의 긴급구제(bailout), 외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2) 번역은 카카오(kakao.com)의 1분(1boon)에 실린 「버니 샌더스가 기독교 대학에서 한 말」(2016년 2월 12일 작성)과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온라인 판에 실린 Chris Cillizza가 쓴 “Bernie Sanders’s Liberty University speech, annotated”(2015년 8월 14일 작성)를 참고했다. 1분에 실린 한글 번역은 버니 샌더스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 표현을 약간 다듬었다.

적 개입, 사형제에 대해, 힐러리는 지지하고 샌더스는 반대한다. 하지만 샌더스는 신앙이나 정치신념이 다르더라도 ‘소득과 부의 불균형’(income and wealth inequality)에선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샌더스는 낮은 주제를 갖고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미국 공화당의 미디어 책임자이자 연설 전문가가 있다. 프랭크 런츠(Frank Luntz)이다. 그가 소통을 설명할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듣느냐이다”(Luntz, 2007:xiii)라고 강조한다.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은 자신의 프리즘(감정, 선입관, 신념)을 통해 이해하기 마련이다. 샌더스는 청자/대중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분석한다. 리버티 대학교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샌더스는 성경 두 구절(마태복음 7장 12절, 아모스 5장 24절)을 인용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오직 정의의 물을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이 두 성경구절은 샌더스가 꿈꾸는 이상을 간결하게 보여준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성경의 황금률이다. 그가 생각하는 정의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하라는 것”이다. 그는 아모스 5장 24절도 황금률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이 두 성경구절의 시각에서 해석한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권리로서 주어지지 않고, 출산한 산모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선진국인데, 샌더스는 이 사실에 분개한다. 그는 연설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는 인간의 위기에서 비롯됐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결과다”란 교황의 말도 인용한다. 그는 성경적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점을 정리한다. “우리는 새로운 이상을 만들었다. 고대의 금송아지 숭배가 인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본의 독재의 모습으로, 돈을 숭배하는 형태로 돌아왔다.” 샌더스나 교황의 지적은 우리가 공공의 장(場)으로 나올 땐 “궁극적 가치에 관한 우리의 확신”(Keller, 2010: 49)을 말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 물론 이런 확신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이것은 샌더스의 이력서가 보여준다.

샌더스는 1981년 버몬트 시 시장 당선으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 8년간(1981-1989) 시장으로 일한 뒤 그 후 17년간(1991-2007) 하원의원을 지냈다. 2007년 상원의원이 되었다. 2012년 재선되었고, 2015년 4월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 30년 넘게 정치를 했지만 불과 6개월 전까지,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는 스스로를 ‘민주적인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로 소개한다. 전기(bio)를 다루는 온라인 사이트(www.biography.com)에서 확인해 보니, 샌더스는 뉴욕시 브루클린(Brooklyn) 출신이다. 위험하고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브루클린 대학(Brooklyn College)을 갔다. 힘겨운 삶을 회고하며, 샌더스는 “나는 불합리를 보았다. 그것은 내 정치에 큰 영감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도 나타난다. 1941년 40세(한국나이 41세)에 시장(mayor)이란 직장을 갖기 전, 그는 목수, 조사원, 프리랜서란 일을 했다. 30세-35세 사이에 선거에 다섯 번 나갔지만 모두 낙선했다. 지지율도 6%를 넘은 적이 없었다. 샌더스는 신념을 따라 살다 40세까지 고전한 것이다.

공자는 나이 40을 불혹(不惑)으로 불렀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Every man over forty is responsible for

his face)라고 표현했다(Phillips, 1988: 81 재인용). 사십이 넘으면 얼굴에 인생관, 직업, 성격, 생활환경에 의한 흔적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도 얼굴에 주목한다. 얼굴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다(Bergo, 2011:17).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에서 “얼굴은 나의 책임을 상기시키고 나를 심판한다. 얼굴 가운데서 나타나는 존재는 높음의 차원, 초월의 차원에서 온다”(강영안, 2012:281 재인용)고 밝힌다.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Bresson)은 점프하는 순간, 얼굴에 나타난 한 인물의 결정적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하려 했다. 뛰는 순간엔 자신의 표정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비평가이자 작가인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타인의 고통』에서 ‘나의 안락이 타인의 고통일 수 있다’란 주제를 분석한다(Sontag, 2004). 공자, 링컨, 레비나스, 브레송, 손택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집약된다. 타자를 위한 삶은 나의 삶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와 연결된다. 사도 바울은 타자를 위한 삶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연결시킨다(고전 10:24, 33; cf 고후 15). 샌더스도 부분적으로 여기에 맞닿아 있다. 경제적 불균형으로 고통 받는 소외된 대중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볼 때, 샌더스는 타자의 정치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버니 샌더스가 미국 동부에 위치한 버몬트 주(State of Vermont)의 상원의원이긴 했지만, 정치 경력이 화려한 것은 아니다. 그의 삶은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를 연상시킨다. 링컨은 1861년 52세에 대통령이 되었으나, 그 이전엔 22세 사업 실패를 시작으로 5번의 선거와 2번의 입후보 모두 줄줄이 좌절을 겪었다. 만델라도 비슷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샌더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미국의 정치 환경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그것도 사회주의적 신념을 품고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이 놀랍다. 가정(假定)하여, 그가 가진 사회적 신념을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가 될 것이다. 샌더스는 30여 년간 하나님 나라란 신념을 펼치기 위해 길을 조금씩 뚫고 나간 셈이다. 그는 자신의 사건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갔으며, 자신의 사건을 정치적 흐름을 바꾸는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로서 가진 자신의 사적 신념을 미국 사회와 정치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샌더스는 부분적으로 크리스천의 삶의 지향성과 목적의식을 보여준다.

III. 결론

기독교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데 동의한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인생, 곧 창(窓)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창이란 ‘빛과 소금’의 인생을 상징하며, 이것은 다른 말로 ‘영향력’(influence)이 된다. 에드 켈러(Ed Keller)와 존 베리(Jon Berry)는 열 명의 미국인 중 한 명은 나머지 9명의 투표, 음식, 혹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면서, 이들을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the influentials)이라고 부른다(Keller & Berry, 2003). 켈러와 베리의 지적을 기독교적으로 설명한다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웃이나 주변사람들이 신념을 가진 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그 한 사람은 주변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 신념, 가치관을 들여다보는 ‘창’(窓)이 되었다는 뜻이다. 비 크리스천들은 종종 ‘나’란 창을 통해 성경 메시지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복음은 ‘기독교 지성’이란 창을 통해 세상으로 유통된다. 유통되면 세상은 살맛나는 곳으로

바뀐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기독교 지성을 부르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관찰한다. 관찰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경계를 푼다. 소금의 맛, 곧 영적, 도덕적 권위를 얻는 데 평생이 걸리지만 예전과 달리 잃는 것은 한 순간이다. 일단 잃으면, 때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³⁾ 조지 데이비스(George Davis)가 지적하듯, 권위는 주어지는(given)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earned) 것이기 때문이다(Maxwell, 1995:102 재인용).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지 않기에, 능력, 재능, 카리스마, 그 어떤 것도 권위를 대신할 수 없다.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함께 맞물리는 창외 인생에선 소통은 양날의 검이다. 소통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동시에 메시지의 진정성도 함께 전달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소음과 잡음과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은 바로 이 통로에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이다. 스토트는 기독교 지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선수이자 국가 대표로 선택받은 존재로 본다. 따라서 기독교 지성이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까는 중요하다. 즉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지만, 얼마나 깊이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의 판단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사회, 경제, 정치의 영역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존재한다. 스토트의 관점에 따르면, 그 위치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실수이다. 모르드 개가 조카인 왕비 에스더(**סְתֵר**/Esther)에게 한 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에 4:14).”는 기독교 지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流通)되지 않은 삶은 땅에 묻은 한 달란트와 같다. 그런 점에서 존 스토트, 버니 샌더스의 삶과 메시지는 남다르다. 그들은 한결 같이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자고 외치며, 동시에 실행을 하기 때문이다. 스토트가 비판한 것도 이유가 있다. 그는 에드워드 노만(Edward Noman)이 1978년 라이스 강좌(Reith Lectures)에서 행한 비판에 동의하며, 이렇게 지적한다. 그는 현대 교회가 가진 정치적 견해들은 주변 문화의 도덕적 정치적 이상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곤 빌려온 아이디어에 “꼬리표를 붙여 종교적 걸치레를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스토트는 분석했다(Stott, 2005:36-37). 이런 논의로 볼 때 스토트는 믿음은 보수적일지라도 적용할 땐 래디컬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 같다.

존 스토트가 아쉬워한 것을 한 두 사람의 기독교 지성이 해결할 순 없다. 하지만 기독교 지성은 분명히 그런 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어야 한다. 샌더스는 상원의원이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과 6개월 전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생각을 미국 시민들과 공유한다. 대통령 경선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나누는 기회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가 한 일은 스토트와 브리너가 꿈꾸던 일이었다. 하나님은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숨겨 놓았다. 그 가치는 먼저 찾는 사람이 주인이다.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가치를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전달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스토트, 샌더스는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그 일을 시작했다. 차이가 있다면, 스토트가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외친 반면, 샌더스는 사회주의자의 관점에서 외친 것이 다를 뿐이다. 허나 이들을 묶는 또 다른 관점이 있다. 그것은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란 사실이다. 누구나 동일한 지점에서 싸운다. 이것은 머리의 싸움이 아니고 관점의 싸움이다.

3) C.H. 스펔전(Spurgeon) 목사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주는 가르침을 쓴 *Lectures To My Students* (1954)에서 몇 가지를 강조한다. 목회자의 자기점검을 다룬 1장에서, 스펔전은 경건과 거룩함을 목회자의 필수조건으로 손꼽았다. 입으론 복음을 외치나 회개하지 않은 목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그는 부도덕함이 공개된 목회자는 목회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Spurgeon, 1954:14).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용기의 싸움이다.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진리를 위해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비결이다. 이 싸움의 원리가 존 스토틀, 버니 샌더스, 밥 브리너에게서 반복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발견자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영안 (2012). “얼굴과 일상.” 『프랑스문화예술연구』 . 39. 263-290.
- 김세윤 (2003). 『복음이란 무엇인가』 . 서울: 두란노.
- 이정일 (2015). “에즈라 파운드의 시와 시론에 나타난 ‘정확성’에 대한 추구.” 『영어권문화연구』 . 8(1). 135-154.

해외문헌

- Agamben, G. (2010). *What Is an Apparatus? and Other Essays*, trans. David Kishik and Stefan Pedatella, Stanford, Calif.: Stanford UP. 양창렬역. 『장치란 무엇인가?』 서울:난장.
- Bergo, B. (2011). “The Face in Levinas: toward a phenomenology of substitution.” *Angelaki*. 16(1). 17-39.
- Briner, B. (1993). *Roaring Lambs*. Grand Rapids, MI: ZondervanPublishingHouse.
- Chapman, A. (2005). “Secularisation and the Ministry of John R.W. Stott at All Souls, Langham Place, 1950-1970. *The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56(3). 496-513.
- Cialdini, R. (1984). *Influence: The Psychology of Persuasion*. New York: Quill.
- Dever, M. (2007). “The Church.” in Daniel L. Akin (Ed.). (2007). *A Theology for the Church*. B&H Academic.
- Foster, R. (1998). *Celebration of Discipline*. New York: HarperSanfrancisco.
- Gardner, H. (1993). *Creating Minds*. Basic Books.
- Grant, Adam (2016). *Originals*. New York: Viking. 홍지수 역. 『오리지널스』 . 서울:한국경제신문.
- Hartley, J. (2002). *Communication, Cultural and media studies: The Key Concepts*. London: Routledge.
- Himmelfarb, G. (1962). *Darwin and the Darwinian Revolution*. New York: Norton.
- Keller, E. & Berry, J. (2003). *The Influentials*. New York: The Free Press.
- Keller, T. (2010). *The Reason for God*. 권기대 역. 『살아있는 신』 . 서울: 베가북스.
- Kissinger, H. (1994).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 Loubser, B. “A connected and plugged-in worldview: Young people and new media.” *KOERS* 77(1). 1-6.
- Luntz, F. (2007). *Words That Work*. New York: Hyperion.

- Maxwell, J. (1995). *Developing The Leaders Around You*. Nelson.
- Micklethwait, J. and Wooldridge, A. (2009). *God is Back*. New York: The Penguin Press.
- Noll, M. (2015). *Jesus Christ and the Life of the Mind*. 박규택 역. 『그리스도와 지성』. 서울: IVP.
- Pearcey, N. (2004). *Total Truth*. Wheaton, IL: Crossway.
- Phillips, J. (1988). *Exploring Psalms* (Vol.1). Grand Rapids, MI: Kregel.
- Pound, E. (1954). *Literary Essays of Ezra Pound*. London: faber and faber.
- Ray, M. & Myers, R. (1986). *Creativity in Business*. Doubleday & Company.
- Stott, J. (2005).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 Sontag, S. (2004). *In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이재원 역. 『타인의 고통』. 서울: 이후.
- Spurgeon, C. H. (1954). *Lectures To My Students*. Grand Rapids, MI: Zondervan.
- Tozer, A.W. (2013). *The Set of The Sail*. 이용복 역. 『예수 방향으로 가라』. 서울: 규장.
- Valk, J. (2012). "Christianity through a Worldview Lens." *JATE* 9(2). 158-174.
- Wallis, J. (2005). *God's Politics*. New York: HarperSanFrancisco.
- _____. (2009). *The Great Awakening: Reviving Faith & Politics in a Post-Religious Right America*. 배덕만역.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 서울:살림.

인터넷

- lboon.kakao.com (2016.2.16. 접속)
- biography.com (2016.2.16. 접속)
- washingtonpost.com (2016. 2.16 접속)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and mission of the Christian Intellectuals: Focusing on John Stott and Bernie Sanders

Jeong-Il Lee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living as a Christian intellect in Korean society today. For this, cases of John Stott and Bernie Sanders are introduced to argue that Christians are called to be the "light and salt" (Matthew 5:13-16) in this world. Scott argues that Christians can influence the world by engaging into social issues. Sanders shows us that genuine message can trigger emotion as well as understanding. By observing these two figures, this paper argues that Christian Intellectuals need to be an effective channel for the Kingdom of God.

Key Words: Christian Intellect, John Stott, Bernie Sanders, light and salt, social responsibility